

# 無等の 북소리로 민주화 꽃 피다

펠리체 솔리스트 연주회 '무등등등'...15일 전일빌딩245

김준태 등 11명 시인 18편 작품 오페라 곡으로  
오월, 그날의 정신 미디어아트·음악으로 구현



음악과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콘서트 오페라가 광주 시민들을 찾아간다.

지역 전문음악단체 펠리체 솔리스트(대표 강양은)의 제15회 연주회가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전일빌딩245 8층 다목적홀에서 펼쳐진다.

이번 연주회는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 공연으로, 5·18의 고난을 넘어 8·15 광복 그날의 환호를 불러온다는 의미를 지닌다. 공연 주제인 '무등'(無等)은 계층

이 없다는 뜻이며, '등'은 북소리를 나타낸다. 무등의 북소리처럼 5·18 정신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염원하며 광주의 울림을 작품에 담아 관객들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오페라 작품들은 고 조태일 시인과 김준태 시인 등 11명 시인의 18편 시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동학혁명에 뿌리를 둔 5·18의 빼어난 우리 가족 이야기이며, 5·18민주화의 시대 정신을 담고 있다.

작곡가 김선철이 엮어 만든 18곡들은 펠리체 솔리스트 단원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울려 퍼진다. 여기에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의 미디어 작품이 그 울림에 깊이를 더한다. 이날 공연은 앙상블 마주엘의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어머니 역의 소프라노 민숙연이 작품이 그 울림에 깊이를 더한다. 이날 공연은 앙상블 마주엘의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막을 올린다.

다음 무대는 아버지 역의 바리톤 조재경과 어머니 역 소프라노 민숙연이 이중창으로 이은봉의 '우궁치후'를 공연하며, 김지하의 '황토길', 신경림의 '갈길', 김남주의 '학살' 등



총감독 김미옥



기획감독 정찬경



지휘 김병무



피아노 김정아



바리톤 조재경



소프라노 민숙연



테너 윤병길



소프라노 최미정

무대가 차례로 펼쳐진다.

딸 역의 소프라노 최미정이 김준태의 '아아, 광주여!' 공연을 선보이며 1막이 마무리된다.

2막에서는 고은의 '화살', 김준태의 '금남로 사랑', 박재구의 '대동세상, 진도아리랑곡조', 임동혁의 '매장시편'이 콘서트오페라 형식에 맞게 각 등장인물의 노랫소리로 울려 퍼진다.

또 구두닥이 소년 역의 이효준 군이 특별출연해 문병란의 '어느 구두닥이 소년의 죽음' 곡을 선사한다. 이 군은 빈트리동요공쿠르, 파랑새동요제, 음악추수공쿠르 대회 등에

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맺음막 공연에서는 조태일의 '풀씨', 문병란의 '광주여 영원하라' 공연이 준비돼 있으며, 공연의 대미는 출연진들이 다 함께 김남주의 '함께 가자 우리의 이 길을' 곡을 부르며 마무리된다.

이번 공연 총감독을 맡은 김미옥 성악가는 "11명 시인의 18편의 시로 이뤄진 곡들은 모두 달라 보이지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평화의 바람을 따라 동등 그 소리의 울림이 퍼져나온 세상 민주화의 꽃이 만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2019년 열린 광주시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 '카르멘' 공연 모습. <광주문화예술회관 제공>

## 광주시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 '카르멘'

### 3년 만에 빛고을 무대 오른다

13-14일 ACC 예술극장2

광주시립오페라단 대표 인기 레퍼토리 콘서트 오페라 '카르멘'이 관객들을 만난다.

공연은 오는 13-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콘서트 오페라 '카르멘'은 오페라의 묘미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콘서트 버전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오페라의 섬세한 음악적 아름다움이 더욱 강조됐다.

1875년 초연 당시부터 강렬한 충격을 선사했으며, 100년 넘게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한국인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오페라 1위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이번 공연은 친절해설과 함께 진행되며, 스페인풍의 화려한 음

악으로 카르멘의 정열과 사랑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 오페라단 단장을 역임한 이경재 예술감독이 연출을, 전남대 박인욱 교수가 지휘를 맡는다.

카르멘 역에는 김하늘·김정미, 돈호세 역에는 이석능·최원휘, 에스카미요 역에는 조재경·공병우, 미카엘라 역에는 이소정·박하나, 프라스키타 역에는 정은지·신은성, 메르세데스 역에는 양은송·김남영, 단카리오 역에는 허지성·최기수, 레멘다도 역에는 고규남·김태성, 주니가 역에는 이하석, 모랄레스 역은 이준희가 맡는다.

콘서트 오페라 '카르멘'은 티켓링크 또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문의 062-412-2502.

/최명진 기자

## 광역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ACC삽화 공모전 대상 수상

올해 처음 개최된 'ACC 대학생 오월 사적지 삽화 공모전'에서 전남대 정문을 그린 광영아 씨의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ACC 대학생 오월 사적지 삽화 공모전' 수상작 4편을 선정하고 지난 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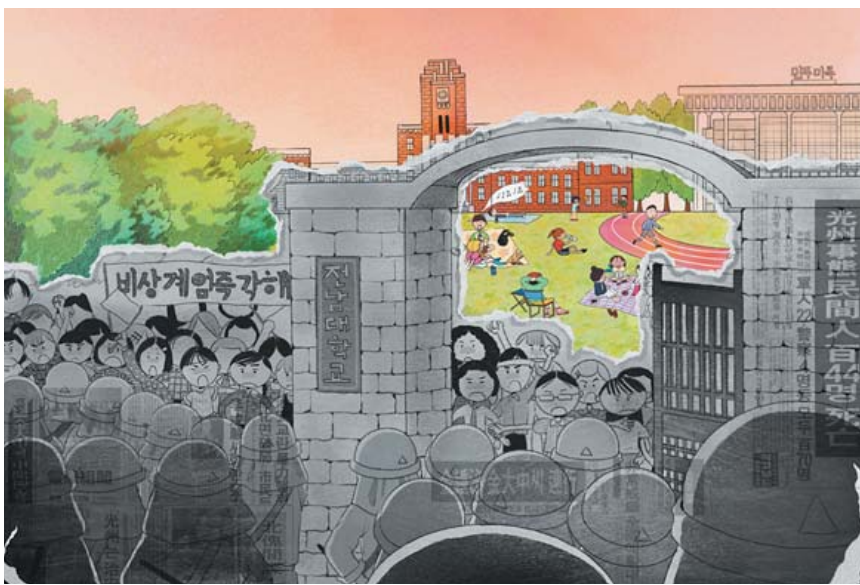
이날 시상식에서는 들불야학 옛터를 담은 '불꽃처럼 살다간 광주의 영웅들(김지홍 작)'이 최우수상, '금남로, 민주주의 행진(김가인 작)'이 우수상, '남동성당(위지원 작)'이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ACC는 역사성과 작품성 등 평가 기준에 따른 두 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ACC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대학의 문화예술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공모전을 열어 작품을 모집했다.

수상작은 ACC 누리집 내 디지털 교육 콘텐츠 '오월스토리 퍼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작품은 ACC의 오월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강현 전당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기반인 ACC에서 미래세대 손으로 그려낸 오월의 역사를 만나는 기회



광영아 작 '그때부터 지금까지(전남대학교 정문)'

였다"며 "앞으로도 오월 그날의 역사와 가치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민 참여 프

로그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대금연주단 어울림 '물 아래 하늘이 비치고'

13일 전통문화관 토요일 상설공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3일 오후 3시 토요일 상설 무대에 대금연주단 어울림의 '물 아래 하늘이 비치고' 공연을 올린다.

대금연주단 어울림(단장 채광자)은 한국 전통예술의 전승 보급을 통해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주변에서 멀어져 가는 전통 음악을 연구하며 시민화합과 통일성 회복에 노력해 온 예향 빛고을의 대표적인 대금 연주 단체다.

박광선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은 '수룡음'을 시작으로 '산마울 이야기', '연변 아리랑 & 영천 아리랑', '내 벗의향', '행복한 동행', '신 뱃노래'의 연주로 대금의 멋과 전통의 향기를 관



대금연주단 어울림

람객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 출연진으로는 단소·대금 채광자, 소금·생황 신선민, 해금 김은정, 아쟁·비파 김나후, 가야금 오예진, 타악 이현우, 신디사이저 신은성, 소프라노 김미혜, 노래 이유진이 함께한다. /최명진 기자

#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 김넷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 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결혼정보 커플유

### 초혼·재혼·전문직

**커플매니저  
프리랜서(알바) 모집!**

모집부문	비 고
프리랜서 (알바) 남·여○명	교통비 + 수당지급 오전 미팅후 퇴근시간 자유 상담 후 결정

• 위 치 : 상무 세정아울렛 부근  
(치평동 1314-4)

# 062)381-6669